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 주 안에서 우리를 길러 주시는 “부모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이 주일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하신 제 5계명을 “각 사람이 자기에게 속한 여러가지 지위와 인륜관계 즉, 상하,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행하라는 것이다”라고 풀어 설명하였다.

오늘 교회와 각 부서에서는 아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과 노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는 각종 기념행사를 가진다. 예배당 입구에서는 어른들의 가슴에 감사를 표하는 꽃을 달아드리며, 스테반회와 여러 교회 학교 학생들은 소망부를 찾아 위로잔치를 가질 예정이다.

우리는 그 부모를 순종하여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효행의 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 한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

워 하시더라”(누가복음 2장 51 - 52절).

어떤 자녀라도 아버이의 가르침을 떠날 수는 없다. 그 가르침 속에는 보호와 기도와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다.

### 가정세미나 남은 프로그램

구분	때	주제	대상
제 2강	19일(금)오전 10시 - 12시	자녀교육 - 행복한 부모와 자녀	자녀를 가진 성도
제 3강	27일(토) 오후 7시 - 9시	부부간의 한마음 워크숍	20 - 50대 부부
강사	심상권 목사		

### 이슬람권 및 파키스탄 선교를 위한

## 『선한 사마리아인 친구들』

(Good Samaritan Friends)

### 창립총회

파키스탄을 비롯한 이슬람권 교회와의 협력 및 모슬렘 대상의 선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친구들(Good Samaritan Friends)』 선교회가 지난 11일(목) 4층 예배실에서 창립총회를 가지고 출범했다. 이 선교회는 이슬람권 선교사의 훈련과 후원, 현지 교회와의 협력 사역, 현지 선교자료 수집 및 발간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파키스탄에있는 <선한 사마리아 병원>을 통한 의료선교 사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격적 활동을 위한 창립 총회는 11일에 있었으나 의료선교팀을 통한 이슬람권 선교사역은 1989년 이종윤 목사와 선교단체(C. C. C. : 대표: 김준근 목사)의 협력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 당시 의료선교팀은 카라치 근교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을 설립하여 전문 선교단체가 인력을 선발하여 훈련하는 일을 맡고, 교회가 재정 후원을 하는 협력 선교의 장을 열었다. 그 후에 외향선교회, S. I. M., 인터서브, O. M. 국제 선교부 등 선교단체들이 합류하여 파키스탄 및 이슬람권 선교를 위한 장·단기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지원하는 등 복음화 사역이 추진되어 왔다.

파키스탄에 첫 한인 선교사가 파송된 지 35년이 되었지만 모슬렘권의 선교가 워낙 어려운데다가 선교활동의 중심점이 없어 헌신과 수고에 비해 힘이 분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차제에 『선한 사마리아인



친구들』은 한인 선교사들을 조직적으로 훈련하고 후원하며 현지 교회와의 관계를 활성화하고 파키스탄 선교사들의 활동을 홍보하며 그들의 평생 선교사역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의해 탄생된 선교회로서, 파키스탄 선교에 관심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이 힘을 합하여 파키스탄을 비롯한 이슬람권 선교활동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날 총회에 앞선 예배에서 이종윤 목사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비전을 받은 사도 바울을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해 부르시던 음성들을 오늘에 듣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지 교회와 선교사들 간에 21세기를 향한 한국교회에 이슬람권 선교의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 선교회는 이번에 우리교회에서 개최하는 김치신학세미나의 국가별 선교전략 등에 참가하여 실제적인 선교 방향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날의 창립 총회에서 이사장에는 이종윤 목사가, 부이사장에는 윤남중 목사와 전재욱 교수가, 총무에는 정인수 목사가 선출되었다.

▶가정의 달 설교 ②

# “네 부모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3 - 29절

이종운 목사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신자라면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과 신뢰로 사랑의 싸움을 틈워야 합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실용주의 사상으로 모든 가치가 도치된 오늘의 사회에서 “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은 진부하게 느껴지고, 가볍게 여기기 쉬운 교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는 수 믿는 자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아버이 주일인 오늘 “네 낳은 아버를 청중하고 네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살펴봅시다.

### 1. “의인이 됴으로써 부모를 기쁘게 하라”

우리의 전통적인 효의 개념은 부모가 장수하도록 마음을 쏟는 것, 물질적인 대접, 가문을 빛내고 높은 벼슬에 앉는 것 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의로운 길을 걷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요삼 1:4). 출세지상주의, 배급주의가 만연하지만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자하는 부모의 마음에 가장 근본적인 바람은 자식이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기도하는 부모를 기쁘게 하려면 진리 안에서 진리를 좇아 진리를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지혜로운 자가 되어 부모를 기쁘게 하라”

이 세상에 자식 없는 사람은 있으나 부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 태어나 최초의 관계를 맺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모든 세상 질서의 기초가 됩니다. 부모님과 관계를 바로 갖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히 나를 낳은 분만을 공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질서있게 모든 일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요, 두려워 할 자를 두려워하고 높일 자를 높이며 사회에 모든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어원을 살펴보면 ‘무겁다’는 뜻이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진리를 좇아 사는 삶으로써,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리고 마음을 드림으로써  
부모님을 기쁘게 애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는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 됩니다.

존중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란 분별력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음을 알고 우선권을 잘 설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 3. “마음을 드림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라”

부모에게 내가 가진 것 다 드러도 마음을 드러지 않으면 부모는 기쁨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마음을 주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이해하려고 하고 사귀어 깊어져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 중 인간에게 주신 첫째 계명이 부모 공경에 관한 것임은 인간이 인간을 향해 마음을 쏟아 해야 할 가장 기초적이고 우선되어야 할 도리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는 놀라운 약속도 함께 주십니다. 효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이 주일인 오늘 부모님과 주변의 어르신들을 기쁘게 할 일을 찾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봅시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 되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망부 어르신들께서 기도하시는 것

## “주님, 두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서울교회 소망부에 속한 저희들 모두가 받은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 더욱이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어 무력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소망부 학생이 되어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어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장 장로님의 따뜻한 보살핌과 부감 권사님과 여러 교사님들의 기도와 저희들을 위한 봉사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 뿐이군요. 비록 이젠 나이 많아 다리에는 힘이 없고 허리는 구부러져 외양은 보잘 것 없고 입술은 어눌하나 진심으로 손모아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이 모든 분들께 크신 복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귀히 대접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과연 섬김을 받을 인품이 갖추어졌는가를 새삼스러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늙으면 아이가 된다더니 그 옛말이 거짓이 아니더군요. 소망부 공부를 마친 후에 음식 나누는 시간이 되면 왜 그리 기쁘지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온종일 땀흘려 봉사하면서도 점심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젊은 분들에게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마다 한가지 더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서울교회에 어서 성전을 짓게 해 주옵소서. 저희 소망부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전에 감격 속에 헌당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저희 서울교회 식구들이 탁아부부터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한 식당에 둘러앉아 주님을 찬양하며 식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어둔한 입술을 열어서 이름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세미나》 강의 요약

“우리 엄마는 상처 투성이,  
우리 집도 상처 투성이”



“행복한 우리 엄마,  
행복한 우리 집”

“...우리 교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세미나를 하고 있다. 그 첫 시간이었던 지난 12일(금)에는 ‘행복한 여성과 가정, 그리고 신앙’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여기에 강의의 요지를 게재한다...”

여성 자신이 행복할 때 가정의 행복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나라 대부분의 여성은 (남성에 비해) 출생시부터 별로 환영받지 못한 데다가 날마다 여성됨을 인정받지 못하고 남편, 자녀, 시어머니, 심지어 친구가 되어야 할 같은 여성들로부터도 갖가지 상처를 받는다. 이래 저래 상처 투성이인 여성들의 내면에는 열등의식, 죄책감, 죄의식이 자리하고, 자화상은 점차로 일그러져가니 모든 관계에 이상이 생기고 만다.

여성의 내적 상처가 치유될 때 자신과 가정의 행복에 관심을 갖게 된다. 여성이 열등의식을 극복하는 것이 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가능케한다. 여성이 자화상을 높일 때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여성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가족도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적힌 종이를 태우거나 찢어버리듯 잊어야 한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할 때 가능하다.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내 몸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성들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데 있다.

-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여성은;
-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고
- 자신의 열등의식을 이기게 되고
- 자신의 자화상이 긍정적으로 높아지며
- 자신의 행복을 느끼며
- 결국 자신의 가정을 행복으로 가득 차게 한다.

그리고 죄책감, 다른 사람에 대해 용서 못한 일, 나쁜 기억, 상처들일랑 마치 모든 목



통합병원 병상에서 드립니다.

## 어머니, 그 어느 여인보다도 아름다운 어머니!

오 윤 결 (군복무중)



어머니! 할머니를 모시던 때가 기억나십니까? 한 번 주저 앉으신 후로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던, 나중에는 누워 지내셔야만 했던 할머니를 모시던 때 말입니다. 맹장으로 얼마되지 않는 기간을 누워 지내면서 할머니와 어머니의 모습이 왜 이리도 생각나는지요. 잠시도 아닌 매일을 누워 계셔야만 했던 할머니와 일관된 사랑으로 할머니를 모시던 어머니가.

할머니가 주저앉으신 뒤로 어머니는 웬만한 외출을 삼가셨습니다. 설령 나가셨다해도 허겁지겁 들어오기에 바쁘셨고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반찬 준비에 분주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 언제나 기도하셨고 당신 마음대로 다니실 수 있도록 안방의 문도 열어 놓으셨습니다. 앉은 채로 거동하시던 할머니께서 더 이상 앉지도 못하게 되셨을 때 어머니는 할머니의 손이 되고 발이 되셨습니다. 식사에서 대소변까지 한 치의 거리낌없이 오히려 항상 송구스러워하시는 모습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자식의 도리’ 라시며 언제나 묵묵히 할머니 수발을 드셨습니다. 몸을 깨끗이 닦아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욕창을 보시고서는 하염없이 우시던 어머니, 말씀도 기억도 회미해지시는 할머니께 성경책을 보이시며 천국의 소망을 잊지 않도록 애쓰시던 어머니, 곁에서 공부하고 같이 자던 동생 선혜와 명걸이, 퇴근 후 집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할머니의 가슴을

만지던 아버지의 사랑이 한데 어울어지는 속에서 할머니는 편안히 주님의 곁으로 가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 사랑’, 그 숭고한 사랑이 자식도 부모를 위해갓추어야만 할 필수적 요소 중 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을 다 빼돌고 무기력해진, 자신의 몸조차도 추스리기 힘들어진 부모를 제 분신과 같이 아끼고 보살피는 일이 당연하다고 말들은 하지만 그것을 실상에 옮기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그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그로 인해 안타까와 눈물 흘릴 수 있는, 친 부모도 아닌 시부모를 위해 그 누구보다도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이세상에 과연 얼마나 될런지요. 어머님께서는 항상 한 것이 없노라시며 부끄러워하시지만 부모님을 공경하고 남편에게는 무조건 순종하며 내조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신 어머님이야말로 이세상 그 어느 여자보다도 크게 느껴지고 자랑스럽게 생각됩니다.

지금도 원치 않게 병상에 누어있는 저와 외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두 동생의 신앙과 인성을 위해 쉽없이 기도하고 기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시던, 그 어느 것보다도 아름답던 모습이 제 가슴 속을 아련히 파고 드는군요. 언제나 건강하세요!

어머니의 아들 윤 결

## 어머니날·어버이주일·캐네이션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날」로 제정되어 지켜왔다.

이 날은 1913년에 ‘어머니 날의 어머니’로 불리우는 필라델피아의 안나 자비스(Anna M. Javic)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5월 9일을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는 날로 하였다. 이것에 서연유하여 1914년 미국의 윌슨대통령이 5월의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한 것이 어머니 날의 시초이다.

어머니 날을 시작한 안나 자비스는 이 날을 가정과 모성을 존경하는 날로서 국경일과 같이 중요한 날로 정해서 전국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여겨 <어머니 날 국제협회>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권 이류가 가정과 모성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함으로써 좀더 나은 생활을 하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자는 것이 그 운동의 취지였다. 또한 그녀는 교회를 캐네이션으로 장식하며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자녀에 대한 사랑과 그 공을 기리는 뜻에서 어머니가 살아계신 성도에게는 빨간 캐네이션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성도에게는 흰 캐네이션을 가슴에 달아 주었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 지금도 부모님의 가슴에 캐네이션을 달아드리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0년 구세군 가정단에 의해 최초로 어머니 주일이 지켜진 바 있으며, 1956년부터 5월 8일을 정부 주관의 어머니날로 지정, 기념해 오다가 1974년부터 양친의 음덕에 감사하며 어른을 존경하는 축일이로서 확대하여 한 날을 보내는 의미에서 ‘어버이 날’로 개칭하게 되었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풍토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올바르게 감당하는 그릇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배려어주시는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는 밤마다 합심하여 여러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 중략 -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골리(Goli) 지역의 김정운 선교사님께서 다녀가시기로 하셔서 그리움 속에 몇날 며칠을 기다렸는데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못 오신다는 기별을 받고 하니 마음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요. 존경하며 사랑하는 선교사님께 직접 무엇을 도울 수 없는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에는 저와 동역자인 은희 자매도 원인 모를 발열과 구토와 설사로 탈진 상태에 처했는데 김 선교사님께서도 저희들을 만나시기 위해 말라리아의 마지막 처방이라고 하는 독한 약을 드시고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저희들은 각자의 병에 시달리며 또 서로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강한 항생제를 먹어도 차도가 보이질 않고,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솜불을 피워놓고 밤을 새우기도 하였으며 하루밤에 스무번도 넘게 화장실을 드나들며 탈진 상태에 빠진 새벽에는 급기야 혈변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저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마구 쏟으며 기도했습니다. 저의 잘못과 죄를 알게 해 주시며, 용서해 주시기를.

잔인한 새벽을 홀로 보내고 이렇게 주저앉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성경책을 펴 들었습니다.

야! 그동안 병원사역과 전도사역을 펴게(?)로 일하나 주님과과의 교제를 등한시 했던지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졌음을 깨닫고 그 어느 때보다 귀한 깨달음을 함께 하고 싶어 고국을 향해 펜을 들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꺾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맞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이사야 49장 15절)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위로는 아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저의 부족한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도구로, 늘 그분이 빛으시는데로 순종하며 깨끗한 그릇으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예비함이 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을 감히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늘 녹아져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직한 종이 되었으면 하고 이 시간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의 후원을 간절히 부탁 드리며 부족한 글을 마칩니다. 우간다에서 임령매 드림

새가족부, 장년부  
집회장소 변경

오늘부터 새가족부는 II부 예배가 마친 후 2층예배실에서 집회를 가진다. 새가족부에서는 새로 등록하는 성도들의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제 1주에는 우리 교회를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하며, 제 2주에는 기도생활, 제 3주에는 말씀생활, 제 4주에는 전도의 생활에 대해 안내와 교육을 한다. 성도의 교제, 봉사과 헌신에 대한 제 5주의 교육까지 마친 새가족은 수료식 후에, 해당되는 교회학교나 선교회·전도회 등에 소속하여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게 된다.

현재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있는 장년부는 1층 예배실에서 집회를 갖게 된다.

순결서약식 오리엔테이션  
5월 19일(금) 오후 7시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1월 1일에 13세 이상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순결서약식을 가진 바 있다. 이는 한국의 전교회가 하나가 되어 벌이고 있는 『정직·절제·사랑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었다. 그 후 청소년들의 순결서약이 기독교 가치관의 정립과 사회 정화에 기여한다고 여긴 전국 교회들이 이 일을 행하기를 위하여 구체적인 방법과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문의가 쇄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오는 19일(금) 오후 7시에 우리 교회당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며 우리교회가 주관하는 이번 순결서약식 오리엔테이션의 강사는 이종윤 목사, 김재호 목사, 김용진 전도사이다.

기독교언론인 초청 간담회  
5월 26일(금) 오후 7시 30분

21세기를 대비하는 한국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독교 언론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다. 오는 26일(금) 오후 7시 30분부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기독교언론인 초청간담회를 우리 교회당에서 갖기로 하였다.

차량관리부원 모집

주일에 차량의 안내 및 주차관리를 위해 봉사할 차량관리부원들을 모집한다. 차량관리부원은 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본인이 가능한 시간에 봉사할 수 있다. 동참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예배위원회를 지도하는 장용휘 목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 목회자 동정 ☞

- 이종윤 목사는 16일(화), 23일(화) 양일간 우리 교회당에서 예비역 기독교장교들의 성경공부 모임을 인도한다.
- 한국기독교장교사문화연구원(원장: 심상권 목사)고문간담회가 15일(월)에 있다.

☞ 교우동정 ☞

- 정무균·이영희 집사(2교구, 역삼 다락방) 가정은 지난 6일 서초구 우면동에 『명동 칼국수』를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574 - 1423)
- 황재복·조숙경집사(1교구 논현 7 다락방) 가정은 지난 12일 평촌에 『상문속셈학원』을 개원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0343 / 86 - 6361)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 5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제 7 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

- ① 5월 15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윤 목사)  
· 제 2교시 / 설교자와 영성(임영수 목사)
- ② 5월 22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윤 목사)  
· 제 2교시 / 예식과 영성(정장복 교수)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2. 제 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에 참석하는 목회자들이 새로와 질 수 있도록
3. 제 6차 김치 신학세미나의 준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위하여
4. 선교사들의 건강과 그들의 사역을 위하여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